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73개 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시행

급식시설 부족 마을에 반찬배달도 실시



보성군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집중적인 영농철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급식시설·인력부족 등으로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7개 마을을 위해 반찬배달 시스템을 새롭게 추진하여 더욱 많은 마을이 간편하게 마을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을공동급식은 마을회관에 취사 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돼 있는 20인 이상 공동급식 가능

한 마을을 선정하여 농번기철 중 25일간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 2백만 원을 계소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1억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보다 22개 마을이 늘어난 총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공동급식에 참여한 주민 김모씨는 "혼자 점심 챙겨 먹기가 귀찮아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는데 공동급식을 통해 주민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니 밥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난을 덜고 이웃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등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로 활력과 온정이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연장근무체제 전환

4~6월 평일 12시간 근무,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번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50종 1,285대에 달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집중 수리·점검을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간 본소·북부본소·남부본소 등 3개 임대사업소의 모든 근무인원을 2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12시간 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등 연장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연장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임대농기계를 출고 및 반납할 수 있어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작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농작업이 끝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를 빌려 쓰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또는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하여 최장 3일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작업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사용 전날 17시 이후에 사전 출고도 가능하며, 1일 임대료 4만원 이상 고객 농기계에 대하여는 0.5일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료 납부는 신용카드·계좌입금·현금결제 모두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귀농인·19세 미만 2차녀 이상 양육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영광군으로 출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은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빈센트의 봄' 정원 축제 개최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장성역·장성공원 일원서

4월의 장성을 노란 풀밭이 물들인다.

장성군은 오는 7, 8일 장성역과 장성공원 일대에서 '헬로우시티! 로 맨틱 봄꽃여행'을 주제로 정원 축제인 '장성 2018 빈센트의 봄'을 개최한다.

'빈센트의 봄'은 4년 전 '헬로우시티! 장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꽃 정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헬로우시티'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뜻한다. 장성군은 노란 황금빛이 가득하고 따스하게 빛나는 색깔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컬러마켓인 '헬로우시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노란 풀밭을 빈센트의 봄 축제의 대표 꽃으로 정한 까닭은 노란색을 대표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이고 고흐가 태어난 나라가 바로 플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장성역 앞에 조성한 조그만 정원에서 출발한 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으며 규모가 커졌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월에 가야 될 축제 10선(選)'에 뽑히며 입소문을 탄 뒤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자동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꽃이 주제인 행사인 까닭에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꽃이다. 장성역부터 장성공원 입구까지는 튤립, 팬지 등으로 아름다운 꽃정원과 꽃길의 조성이 펼쳐진다. 기적이나 연인과 함께 신혼하듯 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오밀조밀하게 연출된다. 장성역 광장에 조성한 봄꽃 정원, 그 중에서도 장성역 앞에 만들어진 '빈센트의 정원'과 '쌍둥이 정원'이 핵심 볼거리다.

부대 행사도 풍성하다. 올해 행사의 경우 특히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장성을 청년회가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장성꽃사모, 장성



드림프리마켓, 전남도시농업연구회, 장성에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축제를 꾸민다. 민관이 협력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전국 축제로 만들며 '가버너스 도시'로 발돋움한 장성의 자치역량 수준을 입증하는 축제인 셈이다.

7일 오프닝 무대는 매일시장 입구에 공방, 카페, 소품샵 등 40여개 업체가 참가해 '청년마켓', '백거리마켓', '친환경마켓', '플라워마켓' 등의 '프리마켓'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베이블레이드 헬로우대회'도 진행된다. 장성공원에선 꽃과 함께 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화전도 열린다.

장성=반명모 기자

농관원-함평 관내 농·축협 농식품 안전성 강화 업무협약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협력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지부장 이명만), 순분농협(조합장 장중남)을 비롯한 함평관내 6개 지역농·축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평사무소가 앞장 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농산물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 직매장 등 농협판매장에 출하하기 이전 생산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을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업인 교육,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부정유통 신고 활성화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판매장 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조사·단속·지도·교육·홍보 등에도 적극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변용철 농관원 함평사무소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농식품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함평 농산물의 인식 전환과 함께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명만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은 "농관원 함평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함평=김평준 기자

관광객 2만여 명 고흥만 벚꽃 찾아

고흥군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까지 고흥만 벚꽃을 감상하기 위해 전국 각지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때 이른 봄기운에 이번 벚꽃은 지난해 비해 일주일 정도 일찍 개화하였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만 벚꽃길은 아직 많은 꽃구경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벚

꽃 명소로 지금은 폐교가 된 옛 두원초등학교에서 고흥만방조제까지 3.5km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2차선 도로의 양옆을 따라 길게 자란 벚나무들이 맞닿아 만들어진 벚꽃 터널은 드라이브 코스에 제격이며, 그 아래 핑크빛으로 물들은 산책길은 연인 및 가족 간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소이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꽃



구름길 조성사업이 올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꽃구름길 보행로와 다목적 공원, 주차장 등 경관정비 인프라가 조성되면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벚꽃구경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농수산물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신안군의 대표 농수산물 '섬초(시금치), 대파, 천일염' 3개 품목이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한국브

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2018년도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신안군의 경우 농식품분야에 '섬

초(시금치), 대파, 천일염' 등 3개 특화품목을 제출하여, 소비자의 인지도와 만족도 등 브랜드경쟁력지수 1위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신안천일염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제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